

# 한국계 미국인 디아스포라의 세대별 양상: 성 노, 줄리아 조, 미아 정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 형 식  
건국대학교

## I. 서론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고 한국인은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유목민이 아니라 한곳에 정착해서 사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근대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인의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유목민으로 내몰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하에 항일 투쟁을 위해 간도 땅으로 이주하거나, 연해주에 거주하다가 소련의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을 당하는 등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는 근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시작되었다. 한국인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먼저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주로 시작되었다. 그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의 입양,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의 이민 등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계 이민은 점점 증가했고 미국사회에서 중요한 마이너리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과 단절된다는 것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3043497).

을 의미했고 이들은 새로 정착한 장소에서도 심리적인 애착과 연대감을 갖지 못했다. 정병언은 에드워드 렐프의 말을 인용하여 “‘장소상실’은 ‘장소를 빼앗기고 장소에서 뿌리 뽑힌’ 사람들이 이 장소와 아무런 심리적인 연계를 맺지 못하는 현상”(227)이라고 정의하면서 줄리아 조의 주인공들을 분석하였다.

디아스포라는 원래 나라를 잃은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현상을 지칭하던 것이었으나 서방의 식민주의로 인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침탈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유랑해야 했던 약자들의 운명을 지칭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의 실상을 다룬 아시아계 미국문학 작품에서 고향으로부터 뿌리 뽑히고 단절된 유목의 상태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며 정체성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셜리 격린 림(Shirley Geok-Lin Lim)은 아시아계 미국문학이 다른 마이너리티 문학과 다른 점이 바로 디아스포라 패러다임에 있다고 본다. 다른 마이너리티들은 두고 온 고향과 계속해서 연관을 맺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계 이민은 추방된 주체로서 이국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296). 그는 최근의 디아스포라 이론들이 “전쟁, 기근, 경제적 장소상실이라는 비극적 과정을 통해 개인들이 겪는 역사적 단절성과 심리적 폭력을 인정하게 되었다”(296)고 주장한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민자, 이민자의 자녀, 입양아, 혹은 국제결혼 커플, 혼혈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 속하지도 못하고 아시아 쪽의 뿌리로부터도 단절된 ‘사이에 낀 존재’이다(이형식 157). 미샤 버슨(Misha Berson)은 아시아계 미국 극작가의 작품을 수록한 앤솔로지의 제목을 『두 세계 사이에서』(*Between Worlds*)라고 붙이고 그들이 “본국과 선택한 조국, 결혼과 이혼,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매달린”(ix)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은 한국계 극작가들의 작품에서 이민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한국계 미국인들의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이들이 미국 땅에서 마이너리티로서 구축하려고 하는 정체성 형성이 각 세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재현되는지 밝혀보려고 한다. 경제적 생존을 위해 하와이와 미국으로 건너 온 1세대 이민들은 사탕수수밭에서의 노동, 세탁소, 청과시장 등에서의 생존,

미군과의 결혼으로 인한 이주와 정착생활을 하면서 언어적인 장벽과 인종차별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1965년의 이민법 개정 이후 건너 온 이민 2세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혹은 화이트칼라 직종 출신으로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자신의 경제적 위상의 제고를 위해 이민을 온 세대이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2세, 혹은 3세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법적인 미국인이지만 외모와 문화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부작용으로 인해 좌절을 겪는다. 이처럼 세대별로 미국 정착의 과정과 정체성 획득의 양상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리사 로우(Lisa Lowe)의 “이질성, 잡종성, 다양성”(heterogeneity, hybridity, multiplicity, 64)이라는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 로우는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출신국가에 따라 다른 종족성(ethnicity)과 이주해 온 시기가 다른 이민들을 “아시아계 이민”이라는 우산과 같은 용어로 부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같은 종족 내에서도 이주해 온 시기에 따라서, 1세대로 왔는지, 미국에서 출생했는지, 1.5세대로 왔는지에 따라서 정체성 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대와 시대별로 다른 한국계 미국인의 이주 양상의 분석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줄리아 조(Julia Cho)의 『상실의 건축물』(*The Architecture of Loss*, 2004)과 『듀랑고』(*Durango*, 2006), 『변두리』(*BFE*, 2003), 성노(Sung Rno)의 『비 내리는 클리블랜드』(*Cleveland Raining*, 1995), 그리고 최근 영미 무대에서 공연하여 호평을 받은 미아 정(Mia Chung)의 『넌 위한 날 위한 너』(*You for Me for You*, 2012)를 텍스트로 삼으려고 한다.

이 작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민 온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1990년대 중반 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극작을 시작한 한국계 2세 극작가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서는 테네시 윌리엄즈, 아서 밀러, 샘 셰퍼드 등의 영향을 볼 수 있지만 또한 카렌 시마카와(Karen Shimakawa)가 “진실을 말하는 사실주의적 연극 양태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많은 신예와 기성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 극작가들의 색다른 미학적 경로”(“Ghost Families,” 382)라고 표현한 특징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동시대 미국 작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미국적인 스타일과 포스트모던하고 초현실적인 무대 기법으로 인종과 종족성, 그리고 디아스

포라의 문제를 표현한다. 이 작품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각 세대별로 이주 과정의 차이와 각 세대 간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줄리아 조의 사막극 3부작은 이미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듀랑고』의 경우 여성 인물이 없이 부자간의 갈등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남성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였다. 미아 정은 탈북자의 미국 이주를 다루고 있어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탈북자 디아스포라 문제에 대해 한국계 미국극작가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되어 포함시켰다.

## II. 이민 1세대: 생존을 위한 이주

허성태와 임영언은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의 한민족』라는 책에서 한국계 미국 이민의 역사를 시대별로 설명하고 있다. 1903년 102명의 조선인을 태운 미국 상선이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주는 1924년에 동양인 배척법으로 인해 이민이 금지될 때까지 약 7200명이 이주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이들과 결혼하기 위해 사진 신부로 건너간 여성들도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약 1000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223). 일제 강점기의 척박한 정치적, 경제적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한 1세대 이민의 모빌리티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이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도피하듯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의 물결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쟁고아의 입양과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의 결혼이주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1965년에 개정이민법으로 인해 이민쿼터제가 풀리면서 새로운 목적을 가진 전혀 다른 성격의 이민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국으로 이주했던 결혼이주 여성과 입양고아를 1세대 이민으로 보고 분석하려고 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작품에서 1세대에 속하는 인물은 『상실의 건축물』에 나오는 노라(Nora)이다. 그녀는 실제 무대에 등장하지도 않고 다른 인물들에 의해 언급만 되는 캐릭터이지만 그녀의 미국 이민 과정과 미국에서의 삶은 그녀의 남편과

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노라는 미군 기지의 바에서 남편인 리처드(Richard)를 처음 만났다. 민간인이 숨어있는 굴에다 사격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대량학살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리처드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술로 자신을 파괴하다가 자신을 구하러 온 노라를 만났다(And you saw me drinking myself into the ground and you came to save me, 45). 리처드는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를 원했으나(I wanted something to fill my lack, 45) 그 공허는 점점 더 커져갔다. 리처드는 노라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평생 되풀이해왔다. 그는 “내가 당신을 쏘고.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쏘고. 구원하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한 삶이었어”라고 말한다. 결혼이 민자로서 노라에게 미국에서의 삶은 남편의 학대와, 언어장벽과, 고립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단절이 계속되는 삶이었다. 작은 한인교회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인들과의 교제가 유일한 사회활동이었던 그녀는 어느 일요일 교회에 갔다 온 뒤 시간관념도 상실한 채 모든 것이 죽어버린 정원에 나가서 정원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인생을 마감한다.

노라가 죽은 뒤 리처드와 그녀의 딸인 캐서린(Catherine)은 노라의 불행한 삶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심각한 갈등 관계를 연출한다. 캐서린이 보기에 엄마의 불행은 “아무 것도 아닌 일에도 아내를 구타하고”(23)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내를 무시한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리처드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캐서린 때문에 엄마가 불행했다고 말한다.

리처드. 엄마는 너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는데 너는 엄마를 보러오지도 않았어. 교회에 같이 가자고 엄마가 얼마나 졸랐니? 그런데 너는 가는 게 싫었지 여자들이 너를 귀찮게 하는 걸 싫어했지. 네 엄마처럼 영어도 못 배우고 염색도 이상하게 하고 신발은 더 형편없는 여자들 말이야. 너는 네가 그들처럼 배에서 방금 내린 황색인(gook)이 될까 봐 두려웠던 거지. (침묵)

RICHARD. She loved you more than anything and you, you hardly even saw her. How many times did she ask you to go with her to church, huh? But you just hated going, hated all those women pressing in on you. Women like your mom who never learned how to speak English, who had bad dye jobs and even worse shoes. Because you were so afraid that you would be just like them, some gook fresh off the boat. (*Silence*) (23)

데이비드 황(David Hwang)의 작품 제목이기도 하며 최근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 “배에서 방금 내린”(fresh off the boat)라는 표현은 갓 이민 온 1세대 이민을 비하시켜서 부르는 표현으로 노라의 남편과 딸의 무의식의 저변에는 한국인으로서의 흔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에 전혀 정착하지 못한 노라에 대한 창피함이 숨어 있다. 이것은 6장(scene 6)에서 “캐서린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캐서린 자신이 들려주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캐서린은 엄마가 다니던 교회를 “교인이 거의 여자들로 구성된 작은 한인교회인데 그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으며, 그냥 남자와 사는 여자도 있다”(17)라고 묘사한다. 자신이 그 교회를 “타락한 여자들의 교회”(The Church of Fallen Women)라고 농담 삼아 불렀다고 하면서, 이들이 타락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초라한 모습(frumpy)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이들을 낮춰 보는 자신의 시각을 드러낸다.

한국전 이후의 불우한 경제상황에서 미군기지 근처의 바에서 일을 하다가 미군과 결혼하여 이주한 국제결혼 여성들은 한국에서도 “양생시”라는 비하적 표현을 들을 뿐 아니라 미국에 와서는 시댁 식구들의 불인정이나 무시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다.<sup>1)</sup> 대개 낮은 학력을 가진 이들이 미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여서 직장을 갖거나 사회진출을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들이 기댈 곳은 남편 밖에 없었으나 전시상황의 군부대라는 특수 환경에서 로맨틱한 감정으로 맺

1) 중국계 미국극작가 디메이 로버츠(Dmae Roberts)의 『깨진 유리』(*Breaking Glass*)에도 대만에서 미군과 만나 미국으로 이주한 메이(Mei)라는 여성이 오클라호마의 오지에 있는 시댁에 와서 겪는 고초와 오리건의 산골에서 백인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어졌던 커플들에게는 남편이 미국의 현실에 눈을 뜨면서 아내를 학대하거나 아내와 이혼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이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에게서 사랑과 희망을 발견할 것을 기대하지만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혼혈로 태어난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이국 태생의 어머니에 대해 창피함을 느끼게 되고 혼혈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디아스포라는 물리적인 장소상실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마음 붙일 곳 없는 유목의 생활이며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의 대화와 유대뿐이다.

또 다른 부류의 1세대 이민은 입양고아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영아나 유아시절에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힌 인물들이다.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입양고아들은 자신의 미국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하등의 갈등과 의심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자의식이 발현하면서 남들과 다른 외모에 눈뜨게 되고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도전을 받는 상황들이 자주 연출된다. 줄리아 조의 『번두리』에는 어릴 적에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인 양부모에 의해 양육된 이자벨(Isabelle)과 레프티(Lefty) 남매가 등장한다. 이들은 미국인 양부모가 자신들을 어떻게 키워야하는지를 몰라서 “마치 스스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38) 살아왔다. 레프티는 새로 사귄 여자 친구 이비(Evvie)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설명하면서 “항상 잘못된 느낌. 다른 사람의 안경을 쓰거나, 남의 자리에 앉은 느낌”(38)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이자벨은 백인 엄마의 손에 양육되어 미국인이 생각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포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도리스 데이의 “케세라 세라”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에서처럼 어머니에게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고 어머니가 제시하는 미국식 미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아시아성을 억압해 왔다. 그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백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패니에게도 그녀의 일부가 된 아시아적 특성을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미학적으로 열등한 것으로”(Woo 247)로 억압하도록 종용한다. 성형수술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며 그녀는 딸의 생일 선물로 이것을 제공한다. 그러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을 혼자 키우면서 광장공포증

에 걸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사는 그녀는 현실감이 없으며 2차 대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맥아더 장군을 이상적인 남성으로 숭배한다. 그녀는 피자배달부가 오자 그를 맥아더 장군으로 오인하고 그와 함께 피자를 같이 먹은 후 섹스를 하고 보내면서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가련한 여성상을 구현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현실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며 유일한 수입원이 되는 그녀의 동생 레프티는 환상 속에 사는 여동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위태로운 사춘기를 보내는 조카를 부양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일한다. 하지만 레프티 또한 주변과 단절되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한다. 어쩌다 호감을 가지게 된 이비라는 점원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비와 같이 살게 될 경우 조카인 패니를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고집하면서 그 관계를 깨어버린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이비에게 패니라는 불청객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레프티는 대중매체에서 얻은 선입견과 정체성 인식으로 인해 이비와 좋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잃어버린다.<sup>2)</sup>

1세대에 해당되는 결혼이주민은 전쟁과 가난, 비극의 땅으로서의 고향을 등지고 미국 땅에 왔지만 새로운 땅에서도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체성이 파편화된 존재로 살아간다. 입양 교아의 경우에는 자신을 낳아준 고국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백인 부모의 손에 양육되면서 백인의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하도록 교육받지만 남의 옷을 걸친 것 같은 혼란을 겪는다. 그 혼란은 성년이 되면서 더욱 커지고 외모와 사고방식의 괴리로 괴로워한다.

### III. 이민 2세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하트 셀러 법(Hart-Celler Act)로 더 잘 알려진 1965년에 개정된 이민국적법

2) 이 주제는 필자가 쓴 「대중매체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변두리』(BFE)와 『김치와 곱창』(Kimchee and Chitlins)을 중심으로」에서 논의되고 있다.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은 미국 이민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이전에는 국가별로 이민을 허용하는 쿼터가 정해져있었고, 그 쿼터는 유럽국가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었지만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쿼터 시스템이 철폐되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이민이 급증하였고 그 결과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도 큰 변화를 겪어서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핵가족 단위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이주 후에도 가족구성원이 유지됨으로써 경제적 적응이 용이했고 대졸, 전문직, 화이트칼라 직종 출신의 이민들은 주로 미국에서의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결심하였다(허성태 · 임영언 236). 자녀를 명문 대학에 진학시켜 의사와 변호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미국에 온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서 발붙이고 사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을 깨닫고 자녀들 또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미국 학생들에게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소원해지고 갈등의 골은 이들을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이끈다.

성노의 『비내리는 클리블랜드』에는 의사인 남편과 화가인 아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자녀를 키우다가 집을 나가버리는 스토리가 전개된다. 오프스테이지 캐릭터로 자녀들에 의해 언급만 되는 이 두 사람이 왜 가정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지는 작품 속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의사와 화가로 유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두 사람이 뉴욕이나 LA가 아니라 아시아 출신이 그다지 많이 거주하지 않는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라는 도시로 왜 오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통해 엄마가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두 아이를 키우던 아버지마저 왜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남아 있는 자녀들의 대사에서 그 이유를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떠난 사람은 화가였던 엄마이다. 아들 지미(Jimmy)가 기억하는 엄마의 가출은 자신의 화구와 캔버스를 엮질러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아들에게 “너는 타고난 화가야”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린 것이다. 여동생 마리(Mari)는 자신에게 닿았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의 촉감으로만 엄마를 기억한다. 아내가 떠나자 의사인 남편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아이들끼리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집을 나가버린다. 아들

인 지미의 기억에 의하면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더라면”(229)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떠난 것을 후회했고, 자신에게 자신의 실패만을 상기시켜주는 아들이 보기 싫어서 떠난 것이다. 부모가 떠나 버린 자리에서 지미는 이름을 로맹으로 바꾸고 화가였던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엄마의 화구를 모두 불태워버리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되려고 했던 마리 또한 의학책을 태워버리고 전문적인 치료사(professional healer)가 되겠다고 한다. 직업적으로 성공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 또한 성공의 발판인 직업을 갖게 하려던 그들의 꿈은 사라져 버리고 이들은 유령가족이 되어버린다. 지미는 “우리는 유령 가족이야. 가족처럼 보이고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어”(263)라고 말하면서 가족의 해체와 종말을 선언한다. 지미와 마리는 “우리는 아버지의 본을 따르고 있어,” “우리는 길 떠나는 가족이야”(267)라는 말로 대를 이어 유목민으로서 살아갈 자신들의 운명을 예견한 후 그곳을 떠난다.

줄리아 조의 『듀랑고』 또한 1965년의 이민법 개정 이후 미국이 활발하게 아시아계 노동력을 받아들일 때 이민을 왔던 부성(Buseng)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천선영은 그동안 아시아계 이민을 “황색 위협”(yellow peril)으로 보았던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적 담론이 그들을 “모범적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로 보는 쪽으로 태도의 변화를 보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주장한다(251). 그러나 그로부터 약 20년 후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바뀌고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계 이민의 기여를 원하지 않게 되면서 이민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극이 시작하면 부성은 정년퇴직을 4년 앞둔 상태에서 각종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 회사에서 성실한 근무자로 인정받아 근속상으로 시계까지 받았던 그는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받고 그 시계를 풀어서 내동댕이친다. 그의 손목에는 그동안 자신의 성취와 그에 대한 회사의 인정의 상징으로 부성이 애지중지하며 항상 차고 다녔던 시계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지난 세월을 보여준다. 회사에서 해고된 다음날 그는 두 아들에게 느닷없이 듀랑고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고 다음 날 삼부자는 콜로라도의 듀랑고

로 여행을 떠난다.

자동차 여행은 로드무비라는 영화 장르에서 많이 등장하며 <어느날 밤에 생긴 일>(It Happened One Night)이나 <이지 라이더>(Easy Rider)와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목표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연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 여행을 통해 인생관이 바뀌기도 한다. 『듀랑고』에서의 여행은 애리조나에서 콜로라도의 듀랑고로 갔다가 다시 애리조나로 돌아오는 로드 무비의 형식과 유사하다. 처음에 부성이 여행을 제안했을 때 큰 아들인 아이작(Isaac)은 전에 아버지와 했던 여행의 안 좋은 기억을 상기하며 아버지가 생각하는 여행이란 바로 목적지 없는 방향이라고 말한다. 그는 어린 시절 계획에도 없었던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면서 몇시간이고 방향을 하다가 결국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너무 어두워 자신의 손을 볼 수도 없었다고 동생인 지미(Jimmy)에게 회상한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그냥 “짧은 여행,” “주변을 둘러보다 돌아오는 것”으로 묘사되던 여행은 결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듀랑고로의 여행이 되며, 이번에도 길을 헤매다가 결국 당도하지만 원래 목적지였던 열차 관광은 이미 매진되어 타보지도 못한다.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행은 부성의 삶의 반영이다. 자신이 목표라고 믿는 종착지를 향해 옆을 돌아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일했으나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중에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은 원래 자신이 원하던 대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인생을 산 것이다. 그러나 비록 듀랑고에 도착하여 열차를 타보는 원래의 계획은 성취되지 못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삼부자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동안 직면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여정을 수정하는 경험을 한다. 그 대화 속에서 그가 왜 실직한 다음 날 듀랑고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는지 드러난다.

오로지 두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20년간 매달린 부성의 삶은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의 주인공 윌리 로먼(Willy Loman)을 연상시킨다. 자동차 여행 중 모텔에서 만난 네드(Ned)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부성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다.

“나는 내 일이 싫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모든 자잘한 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해야만 했죠. 보고서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루 종일. 매일. 오늘도 내일도...”(30).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네드가 묻자 그는 “내가 원하는 건...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요.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게”(30)라면서 스스로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신과 직면하게 된다. 매우 상징적이게도 그들이 머문 모텔에는 “빈 방 있음”(vacancy)이라는 글자를 향해 다이빙하는 여자의 네온사인인 반쪽이다. “vacancy”라는 단어는 모텔에 방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어의 문자적 의미로 공허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생 헛된 노력을 경주해 온 부성의 인생을 요약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실제로 네드와의 대화를 마친 부성은 발을 헛디쳐서 수영장 물에 빠지는데 그가 실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포자기적인 심정으로 물에 뛰어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이빙하는 여자의 네온사인은 아이작이 기타를 치며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부르는 노래 가사에도 등장한다.

평생 무거운 샘플 케이스를 들고 세일즈 여행을 다녔던 『세일즈맨의 죽음』의 윌리 로먼처럼 부성도 정년을 4년 남기고 해고가 된다. 장학금을 주겠다고 세 군데의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아들 비프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윌리 로먼처럼 부성도 두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해고당한 그를 데리고 나가는 경비원 제리(Jerry)에게 그는 두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설명하며 작은 아들은 수영 챔피언으로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것이며, 큰 아들은 하와이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막 면접을 보고 왔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정작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정해 놓은 목표를 마치 못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아이작이 하와이에 갈 때 부성은 하와이대학교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꼭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정작 아이작은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라는 꾸중을 듣자 아이작은 분노를 폭발하며 “나는 아버지를 위해 15군데 의대에 원서를 넣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10시간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 노력도 안했다는 이야기 하지마세요”(20)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작이 하와이에 가서 아버지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

나라 아예 면접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동생과의 대화에서 밝혀진다. 그는 호텔에서 포르노만 줄곧 보다가 그냥 돌아왔던 것이다. 부성은 아이작에게 “나는 단지 너를 도우려한 것뿐인데. 너는 고마워하지를 않아. 한번도. 어릴 때부터 너무 이기적이야. 지미. 그 애야 말로 내 아들이지”(50)라고 하며 지미에게 희망을 건다. 그러나 지미 또한 형과 서로 비밀을 털어놓는 대화에서 형이 면접에 안 갔다고 하자 자신도 수영팀을 그만 두었다고 말한다. 그는 “내가 왜 가족의 희망이 되어야 해?”라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아버지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했으며 “그래. 수영이 싫었어. 항상 싫었어”(39)라고 말한다. 자신의 이민 생활 부적응과 실패를 두 아들의 성공으로 보상하려고 했던 부성의 노력은 이처럼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역효과를 가져온다.

부성의 두 아들에게도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단한 일이다. 더구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를 아버지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 왔다. 비록 아이작이 의대 진학을 꿈꿀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지미는 수영 챔피언으로 그냥 주립대학교가 아니라 “좋은” 대학교에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두 아들의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들 또한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병언은 “어머니의 부재는 자식들에게 ‘장소’의 상실감을 유발하는 핵심요소다”(227)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를 기억하기에 너무 어렵던 지미는 상실된 어머니의 기억이 너무 아쉬워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엄마가 요리를 잘 했느냐는 질문에 아이작은 엄마의 모든 음식이 맛이 있었고 미술사처럼 냉장고에서 아무 거나 꺼내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나서 엄마의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엄마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났어. 정말 좋은. 향수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 자체의. 엄마의 피부 냄새”(31)라는 아이작의 대사는 그 또한 얼마나 엄마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준다.

루스 라이브시는 “친밀하고 자의식적이며 성찰적인 공간 애착감을 형성할 수 있는 예술의 우월한 힘”에 대해 글을 쓰면서 “향수병은 고향에 대한 강렬한 갈

땅”을 가리키며 그 병이 “너무 지독해서 환자가 태어난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를 태어난 장소의 광경, 소리, 냄새로 돌려보내면 즉각 회복될 수 있다”(203)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고 지적한다. 라이브시는 “이동 중의 세계에서 향수병에 면역력을 지니려면, 친숙한 일상적 물건들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집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했다”(203)면서 “기억의 물질화 및 장소감 구성”(204)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와이에 인터뷰를 갔다 온 경험을 묻는 지미의 질문에 아이작은 하와이는 “약속의 땅”이며 “맥도날드에 가도 케첩 옆에 간장이 있고 길모퉁이 가게에서도 김치를 살 수 있어”(12)라는 말로 그곳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음식을 통해 말한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자극했고 그는 인터뷰에 가는 대신 몰에 있는 카페에서 해가 질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다. 의사가 되는 것은 자신이 원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의사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여 위신을 세우려고”(20) 강요한 길이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다. 지미에게 전하는 엄마의 대사에도 음식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녀는 지미에게 고집이 센 아빠와 형을 도와주라고 부탁하면서 “나의 특별한 갈비 조리법을 알려주마. 언젠가 착한 아가씨를 만나서 같이 만들어 먹고 행복해라”(42)라고 말한다.

줄리아 조가 자신의 작품에서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은 『피아노 티처』(*The Piano Teacher*), 『가지』(*Aubergine*) 등의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관왕(Quan Wang)은 “한국인 이민에게 음식은 가장 중요하다”는 조의 말을 인용하면서 『언어 아카이브』(*The Language Archive*)에서 언어와 음식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언어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129). 『듀랑고』에서 이민의 과정을 통해 가장 고통받는 인물은 부성의 아내이다. 이름조차 부여되지 않은 그녀는 “한국말을 하면 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을, 심지어 네 아빠조차, 항상 웃게 만들었지.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내 모든 유머를 잃어버렸어”(42)라고 말한다. 계량컵으로 재료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온도를 맞추는 서양식 조리법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아무 거나 꺼내서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그녀의 조리법은 모두를 웃게 만드는 그녀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닮아있다. 그러나 그녀의 한국어는 미국 땅에서 도태되어 그녀와 함께 아카이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

2세대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고학력이면서 미국에서의 더 나은 삶과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이민을 왔다. 그러나 비록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미국의 직장이나 생활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을 만큼 유창한 영어는 아니며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당한다. 부성의 경우 20년간 성실하게 일해 왔고 근속상으로 시계도 받고 케이크와 함께 축하도 받았다. 그러나 직장생활에서는 단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해고 통고를 위해 부성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한 밥(Bob)은 부성의 부서 사원들 중에는 그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당신이 효율적이지 않은 영역 . . . 팀웍이라든가 . . . 의사소통 기술이라든가”(23) 하면서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효율적이지 못했던 그의 약점을 지적한다. 말하자면 그는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해왔던 것이다. 카렌 시마카와는 “의사소통 기술이란 단지 ‘영어의 유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문화적 유창성의 미묘한 무형적인 특징’을 지칭할 수도 있다”(“On Listening to the Unsaid” 88)고 말한다. 그가 회사동료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따돌림 당하며 놀림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사실은 ‘가족초청의 날’(Family Day)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부성은 스트레이트 에이 학점에다 반에서 2등을 하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아이작을 회사에 데려왔는데 아들이 자기의 동료들과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발음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된다. 동료들은 “헤이, 아이작, 네 아빠 말을 어떻게 이해하니? 영어가 너무 형편없는데!”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 아이작은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엉터리 아시안 영어가 너무 유창하거든요”(46)라고 대답하며 함께 깔깔댄 것이다. 그 사건은 5년 전에 일어났고 부성은 이것을 마음에 꾀하게 담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터뜨린다. “존경심도 없는 녀석,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야지, 누굴 닮아가지고 . . .”라고 부성이 말하자 아이작은 “엄마는 적어도 말을 하잖아요. 빌어먹을 5년 동안 할 말을 꾀하게 마음에 담아두는 변태는 아니라고요”(46)라고 말하

는데 여기서 부성과 아내의 성격의 차이뿐 아니라 부부의 갈등을 볼 수 있다.

『비내리는 클리블랜드』의 경우 지미와 마리의 부모가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듀랑고』의 경우 부성이 이민을 오게 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부성이 실직한 다음날 왜 듀랑고를 가고 싶어 했는지 밝혀진다. 듀랑고로의 자동차 여행 중 지미가 잠들어 있는 사이 부성은 아이작과 대화를 나눈다. 그는 하와이에 있는 자신의 친구를 언급하면서 그가 아이작과 지미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부성의 부인이 그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부성이 아내를 중매로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하였으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의 친구가 그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때는 하고 싶은 것을 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아들에게 설명한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레고리 펙처럼 잘생기고 남성성의 화신처럼 보이는 이 친구와 부성 사이에는 동성애적인 감정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부부사이에 금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성이 아내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아내의 심정을 말하는 장면에서 그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성. (아내의 목소리로) 편지를 더 잘 숨겼어야죠. (브로셔를 든다. 새 것이다) 예쁘네요. 좋은 시간 보내겠네요. 물론 하와이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훨씬 가깝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 . . 콜로라도를. (브로셔를 던지며) 싸우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쳤어요. 가지 말라고 하지 않을 게요. 그를 만나고 싶으면 가세요. 자유니까. 당신이 선택해요.

BOOSEUNG. (*As his wife*) You should hide your letters better too. (*She holds up the brochure. It is new.*) It looks very pretty. I'm sure you'll have a wonderful time. Of course, it's not as beautiful as Hawaii, but it's a lot closer isn't it? Who knew you had such a burning desire to see. . . . Colorado. (*She throws the brochure down.*) I don't want to fight. I am too tired. So I am not going to tell you not to go. If you want to



go see him, go. You're a free man. You have a choice. (47)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암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정리를 해보면 부성은 친구와 동성애적인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쉽게 용납이 되지 않던 시절인지라 중매결혼으로 서둘러 결혼하고 도피하듯이 이민을 왔고, 줄곧 힘든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부인이 암으로 사망하고 난 뒤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왔던 것이다. 너무 어려서 옛날을 기억 못하는 지미에게 아이작은 “부모님은 많이 싸웠어”(32)라는 말로 그들의 관계를 요약한다. 부성이 비록 『비 내리는 클리블랜드』의 아버지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좌절된 성적인 욕망, 부인을 암으로 보낸 아픔, 미국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이 부성의 이민생활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회사에서 서랍을 정리하다가 거기서 브로셔를 발견하자 그는 오래 전에 좌절된 듀랑고로의 여행을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부성에게는 듀랑고로의 여행은 오래 전에 성취하지 못했던 친구와의 여행을 실현해보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마지못해 따라 나선 아이작에게 이 여행은 고집불통인 아버지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대 인터뷰 실패를 비롯한 그동안의 억압을 모두 쏟아내는 계기가 된다. 지미는 처음으로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적극적으로 길을 나섰으나 형과의 대화를 통해 수영에 대한 회의와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고백하고 형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모두 밝히려 할 때 형을 공격한다. 정광숙은 “듀랑고로의 여행은 이 캐릭터들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경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들의 좌절된 판타지에 대한 메타포가 된다”(194)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병언은 “듀랑고 여행은 이렇듯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이다”(239)라고 주장한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 지미는 차창 밖으로 자신이 그렸던 그림을 하나씩 찢어서 버린다. 심지어 엄마와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사진마저 차창 밖으로 사라진다. 집에 돌아온 아이작은 학교에 다시 전화에서 인터뷰 스케줄을 잡겠다고 말하고 지미는 “제가 의사가 될까 봐요”라고 말한다. 부성은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죽기 전

에 뭔가 좋은 일을 . . . 하고 싶어”(52)라고 윌리 로먼의 대사와 비슷한 말을 한다. 두 아들은 오랜 방황 끝에 아버지가 원하고 미국 사회가 용인하는 정체성을 포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 들어간다. 부성은 하와이 친구가 응답기에 남긴 메시지를 듣고, 지미는 그림을 그리지 않은 채 책상에 그냥 앉아 있으며, 아이작은 첫 장면에 나온 노래의 코드를 연주할 뿐 노래를 하지는 않는다. 『변두리』의 마지막 장면과도 유사한 이 장면에서 가족은 자신들 속의 욕망을 억압한 채 각자의 방에 주저앉아 있다. 『비 내리는 클리블랜드』에서 자녀 세대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떠나는 것과는 대조되는 엔딩이다.

『비내리는 클리블랜드』와 『듀랑고』의 부모 캐릭터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제2세대 한국계 이민들은 중산층 출신과 고학력자라는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유창성 결핍으로 주류에 편입하는데 실패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좌절되고 그 영향을 자식들에게까지 미친다. 미국에 온 것을 후회했던 지미와 마리의 아버지,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대학총장과 기업의 사장으로 출세한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부성의 경우처럼 이들은 미국적 정체성 획득에 실패한 아픔을 고국으로 향한 노스텔지어로 달래려 한다.

#### IV. 새로운 3세대 이민으로서의 탈북자

<널 위한 날 위한 너>는 미아 정이 2010년 브라운대학교의 예술석사(MFA) 과정에 있을 때 쓰고, 2012년에 완성한 후 그해 가을 워싱턴 DC의 울리 매머스(Woolly Mammoth) 극장에서 초연하고 2015년 12월 3일 런던의 로열 코트(Royal Court)에서 영국 초연을 하면서 현재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다. 미아 정은 각각 따로 이민을 왔다가 뉴욕에서 서로 만나 결혼한 핵기술자인 아버지와 사업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미아 정이 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된 계기는 2009년에 미국의 두 여기자 로라 링(Laura Ling)과 유나 리(Euna Lee)가 북한국경을 우발적으로 넘었다가 억류된 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 데

려가서 그들을 데리고 온 사건이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BBC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탈북 자매의 이야기였는데 한 사람이 먼저 탈북하여 돈을 벌어서 동생을 북에서 탈출시켜 남한으로 왔지만 동생은 모든 것을 거부하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내용이었다. 자매가 떨어져 있다가 다른 자매를 구해온다는 이야기는 이 작품의 내용과 맞아떨어진다. 부모님으로부터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와 북한 정권이 언제라도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미아정은 “과연 이 체제가 붕괴될까? 통제가 엄격하고 충성심이 저렇게 강한데. 두려움인가 충성심인가? 어떤 면에서는 둘 다인 것 같다”(Williams)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2009년은 또한 제이시 듀가드(Jaycee Dugard)라는 여성이 18년 동안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던 해이기도 했다. 그녀는 11살 때 등갓길에서 납치되었다가 납치범의 집에 갇혀서 살면서 성폭행당하고 딸을 두 명 낳으면서 살다가 풀려났지만 납치범을 두둔하는 소위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 증세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미아정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한국계 미국 극작가로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서의 삶을 다루는 작품을 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많은 리뷰들이 ‘마술적 리얼리즘’(magical realism)이라고 부르는 몽환적인 무대로 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미국에서의 정착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작가 자신 또한 “나는 북한에서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들의 상상, 심리 속에 들어가고 싶었다”(Williams)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민희(Minhee)와 준희(Junhee) 자매에게는 앞에서 살펴본 1세대, 2세대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이주의 이유가 있다. 이들의 디아스포라는 극한 상황, 굶주림,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로부터의 결사적인 도피와 탈출이다. 이들이 왜 탈출을 해야 하는지는 죽 한 그릇을 놓고 서로에게 권하는 첫 장면에서 생생하게 드러난다. 언니인 민희는 병이 들어 아픈 몸인데도 죽을 동생에게 양보한다. 브로커를 통한 탈출의 과정에서 민희는 우물에 빠지게 되고 준희만 탈출한다. 그 다음부터 연극은 북한과 뉴욕이라는 두 공간을 대조시키면

서 “북한 사회의 결핍과 심리적 조건화, 미국 소비주의의 피상성과 약탈성”(Marks)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진행된다.

우물에 빠진 민희는 북한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을 연출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녀가 겪는 경험인지, 아니면 우물 속에서 그녀가 상상하는 내용인지 확실치 않다. 올리비아 팝(Olivia Popp)은 리뷰에서 “그녀를 둘러싼 만화 같은 세상이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인가? 실제로 감방에서, 아니면 대본에서 제시되었는지 바닥이 없는 우물에서 종신형을 받고 갇혀 있는 것인가? 우물은 은유적인가, 아니면 민희의 심리 상태의 표현인가?”라고 묻고 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처럼 쌀 오케스트라, 김정일리아라는 베고니아 식물, 아코디언을 가진 곰, 곰과 술을 마시는 관리직원, 나무에 있을 그리는 작업 등 기상천외한 광경들이 펼쳐진다. 남편은 고문당하다가 처형당하고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 또한 만나지 못한다. 그녀는 열심히 일해서 점수를 쌓았지만 너무나 임의적인 시스템은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they wiped the slate clean) 민희에게 실망을 안겨준다. 23장은 그동안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어렵듯이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녀의 아들은 남한 DVD를 보다가 재교육기관으로 잡혀가고, 아들이 병에 걸려 거의 유행처럼 집에 왔을 때 남편이 약과 음식을 구하러 중국에 간다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제시된다. 환상 속에서 돌아온 남편은 자신이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여인이 신생아를 익사시키는 장면도 보고, 물건을 훔쳤다고 아이를 때려죽이도록 강요받기도 하다가 결국 공개처형 되었다고 말한다. 남편은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나와 같이 여기 있어. 다시는 말하지 못할 거야”(85)라고 하면서 민희의 목을 조르고 민희는 화들짝 정신이 들어 남편을 밀치고 깨어난다. 악몽에서 깨어난 민희는 브로커의 소리에 깨어나 그에게 구출되고 마침내 동생과 상봉한다. 민희에게 있어서 북한은 임의적인 폭력과 착취와 뇌물 수수가 있는 계급사회이다. 그녀는 “여기서 우리는 5등급이야! 정부 밑에, 군대 밑에, 도시 사람들 밑에, 남자들 밑에, 우리가 있어”(18)라고 말한다.

준희가 언니를 남겨두고 탈북한 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으로 이주한 동기는 너무나 분명하다. 언니가 우물에 빠지고 혼자 탈출할 때 언니를 꼭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말하자 브로커는 “북한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뿐이야”라고 말하고 준희는 “미국 사람이 되면 할 수 있어요?”(26)라고 물어본다. 준희가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에도 그녀의 귀에는 브로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 “잠 잘 때도 아메리칸 드림을 꾸어야 돼. 영어가 완벽해야 돼. 모든 것, 특히 지금 네가 누군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좋아.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43).

북한에서 바로 미국으로 온 탈북민이 미국 사회를 접할 때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충격은 이민국 직원을 비롯하여 준희가 대하는 모든 인물의 이름이 리즈(Liz)이고 리즈가 말하는 영어가 3배 정도 빠르고 알아들을 수 없게 제시되는 것에서 나타난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횡설수설(gibberish)로 쓰인 대사는 괄호 속에 번역이 있을 정도로 난해하지만 준희가 차츰 미국 생활에 적응해갈수록 점점 이해 가능한 언어로 바뀐다. 한가지 코믹한 말장난은 리즈라는 환자를 준희가 대할 때 등장한다. 준희가 물건을 바닥에 엎지르자 리즈는 그것을 “염소 표백제”(Chlorine Bleach)로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 데 준희는 그것을 “Korean Bitch”라는 욕설로 이해한다. 병원의 행정실의 리즈는 성실한 근무자인 준희를 우대해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중환자실(ICU)에 배치시킨다. 리즈는 “불평도 없고, 항상 도움을 주고, 힘든 일도 쉽게 하고, 늦는 법이 없고, 집중하고, 차분하고, 일만 하는” 준희와 같은 사람이 스무 명은 있으면 좋겠다고(Do you have sisters? I need twenty Junhees, 53) 하지만, 중환자실에 가면 정규직이 될 수 있냐는 준희의 질문에는 답을 얼버무리고, 연금(benefit)도 주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캔디를 주면서 알아보겠다고만 한다.

준희가 미국에 온지 2년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 앨라배마에서 이주해 온 웨이드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가 등장한다. 똑같이 낯선 곳에 이주해 온 처지인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준희는 자신이 미국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 월마트에 가는 일, 배심원을 하고 싶은 열망, 워싱턴과 라스베가스에 가고 싶은 소망을 그에게 이야기하며 비로소 미국 사회와 문화에 젖어든다. 코믹한 장면 하나는 그들이 야구경기를 보러 양키 스타디움에 갔을 때 웨이드가 “그러니까 당신은

양키 팬인가요?”라고 묻자 준희가 “저는 결코 양키 악마의 팬이 될 수 없어요”(I can never be a fan of the Yankee devil, 77)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웨이드가 말소리를 낮추자고 하자 준희는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닌가요”라고 묻고 웨이드는 여기서도 그러지 말라고 말한다. 민희가 우물에서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상상의 감을 먹으려 할 때 준희의 발밑에는 감이 떨어진다. 감을 한 입 베어 문 준희는 언니를 생각하고 언니를 데리러 갈 생각을 한다. 여기서도 감이라는 음식이 환기시키는 정서적인 기억은 그녀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언니를 소환한다.<sup>3)</sup>

서로 떨어져 생활하던 자매는 준희가 미국에서 돈을 모아 다시 브로커를 통해 민희를 구하는 27장에서 상봉하게 된다. 그러나 상봉의 순간은 잠시 지나가고 준희는 지갑과 미국여권을 주면서 브로커에게 언니를 태국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한 후 군인에게 사살된다. 브로커는 첫 번째 탈북에서 민희가 우물에 빠졌을 때와 같이 “항상 희생이 따르는 법이죠”(There is always a sacrifice, 99)라고 말한다. 준희의 디아스포라는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갔다가 북한에서 멈추는 궤적을 보이고 민희는 이제 남한으로의 이주를 하게 된다. 민희에게 다가 온 남한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하나원으로 가는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사무직원의 설명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준희가 미국에서 처음 접했던 횡설수설 못지않게 이해 불가능한 설명이다.<sup>4)</sup> 마지막 장면에서 시장을 봐 온 민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밥과 김치로 구성된 소박한 식사를 한다. 첫 장면에서 죽 한그릇을 놓고 서로 승강이를 했던 자매는 이제 한 사람만 남아서 한국인의

- 3) 『듀랑고』에서처럼 음식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물건이다. 원래 이 장면에서 쓰인 과일은 배였다가 감으로 바뀌었고 김주연은 “보스톤 공연이 공간을 가로질러 속히 이동할 수 있는 이국적 물품으로서의 감의 가치를 강조한다”(331)라고 쓰고 있다.
- 4) 김주연은 이 작품의 초기 버전과 현재 인쇄 버전을 비교하면서 워십 버전에서는 준희가 미국으로 처음 갔을 때 언니의 신분으로 살았고, 민희가 탈북한 뒤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다시 가서 이민국 직원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말한다(336). 북한 탈북자가 바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국에 사는 북한 탈북자도 200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인 밥을 피놓고 과거를 떠올린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라는 세 개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자매의 디아스포라의 스토리는 이 세 개의 공간이 표상하는 커다란 이미지로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북한에 있는 자매의 방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반면 미국의 백화점에서는 미국의 소비주의를 상징하는 상품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다. 피터 막스는 공연 리뷰에서 “나중에 준희가 뉴욕에서 전자제품 쇼핑을 할 때 세 개의 거대한 포스터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 광고이다”라고 적고 있다.<sup>5)</sup> 민희가 남한에 왔을 때 사무실에는 남한 지도와 하나원 민원 상담소의 사진이 걸려 있다. 직원은 서울에서 안성의 하나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설명한다. 이 세 개의 포스터는 민희와 준희 자매가 거쳐 왔던 유랑의 길과 그들이 거주했던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각각 북한의 전체주의, 미국의 상업주의, 그리고 남한에서의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다. <널 위한 날 위한 너>라는 제목처럼 민희와 준희 자매는 언니가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또 희생한 언니를 위해 동생이 희생하는 사이클을 보여준다. 한국의 역사에서 근대예 시작된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이제 분단 상황에서의 탈북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고 있고 한국계 미국 극작가를 통해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 V. 결론

희망과 꿈의 땅 미국을 향해 이주를 꿈꾸는 한국인들의 행렬은 일제 강점기 이래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 물결은 1970년대에 피크에 도달했으며, 한국이 이제 세계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살게 된 오늘날 그 열망이 시들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은 유효하다. 특히 조기 유학을 떠나거나 유학 갔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잡아 정착하는 패턴은 최근에 등장한 이주의 현상이다.

5) 이 작품은 여러 번의 개작을 거쳤는데 워싱턴 DC의 울리 매머스(Woolly Mammoth) 극장에서의 공연에는 준희가 스마트폰을 사러 전자상가에 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계 이민은 어떤 에스닉 마이너리티보다도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강하며 한국과의 끈을 계속 연결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아무리 이민생활의 연수가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이 정착의 땅이 아니라 여전히 유목의 땅이기 때문이다. 장소상실의 감정은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이주해 간 장소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각 세대별로 살펴본 한국계 이민의 디아스포라 양상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전쟁과 식민의 경험을 몸소 겪었던 1세대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라기 보다 시대적 상황에 내몰려 디아스포라의 길로 나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세대보다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적 능력의 부재와 고립과 단절로 인해 가족들과도 유리된 채 같은 처지의 이민자들과의 유대감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고학력의 전문직이나 유학생들이 주를 이루었던 2세대 이민들은 그곳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꿈을 꾸는 등 1세대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듯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와 현실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들고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완벽한 영어를 하며 미국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자녀들조차 부모의 사회적 부적응과 한국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춘기 시절부터 인종적 감수성이 예민해지면서 주변의 차별과 무시를 폭력이나 고립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도 보인다.<sup>6)</sup> 최근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된 탈북민 이주를 다룬 미아 정의 작품은 북한과 미국이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다른 사회로의 이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준희가 미국으로 이주하는 유일한 목표는 미국 시민권을 따서 언니를 데려오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도 겪어야 할 많은 문화적 충격을 주지만 폐쇄된 사회

6) 줄리아 조는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조승희 총기 사건에 대해 조승희가 자신과 같은 성을 쓰고 있다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McMaster 134) 미국에서 한국계 이민의 자손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오피스 아워』(Office Hour, 2016)라는 작품에서 다루었다.



인 북한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은 거의 외계로 가는 것과 같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극은 준희의 충격을 언어적 표현으로 보여준 뒤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언니를 구출하러 다시 북한 국경으로 돌아가는 준희의 궤적을 보여준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언니를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준희를 기억하며 민희는 남한으로 이주하고 남한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북한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북한에서 또 한국으로 이주하는 자매의 삶은 유일한 분단국가 한국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현상이다.

주제어 디아스포라, 장소상실감, 정체성,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 조, 성로, 미아 정

### 인용 문헌

- Berson, Misha, ed. *Between Worlds: Contemporary Asian-American Plays*.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 Group, 1990. Print.
- Cho, Julia. *The Architecture of Loss*. New York: Dramatists Play Service, 2005. Print.
- . *BFE*. New York: Dramatists Play Service Inc., 2006. Print.
- . *Durango*. New York: Dramatists Play Service Inc., 2007. Print.
- Cheon, Sun-Young. "The Quest of Searching for Diasporic Subjectivity in Julia Cho's *Durango*."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29.3 (2016): 247-71. Print.
- Chung, Kwangsook. "Julia Cho's *Durango*."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29.3 (2016): 191-212. Print.
- Chung, Mia. *You For Me For You*. London: Bloomsbury, 2015. Print.
- Heo, Seongtae, and Im Young-Eon. *Global Diaspora and Koreans in the*

*World*. Seoul: Book Korea, 2016. Print.

[허성태 · 임영언.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의 한민족』. 서울: 북코리아, 2016].

Jung, Byung-Eon. “The ‘Placeless’ People’s Journey and Dream in Julia Cho’s *Durango*.”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and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33.1 (2015): 223-42. Print.

[정병언. 「줄리아 조의 『듀랑고』, 장소 상실자들의 여행과 꿈」. 『현대영미어문학』 33.1 (2015): 223-42.]

Kim, Ju Yon. “In the Space Made from Separation: Korean American Performance of North Korea in Revision.”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20 (2017): 313-43. Web. 25. Feb. 2020.

Lee, Hyung Shik. “Return of the Ghosts: A New Trend in the Plays of Korean-American Playwrights.”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20.2 (2007): 155-80. Print.

[이형식. 「유령들의 귀환: 한국계 미국극작가 작품의 새로운 경향」. 『현대영미드라마』 20.2 (2007): 155-80].

Lim, Shirley Geok-Lin. “Immigration and Diaspora.” *An Interethnic Companion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Ed. King-Kok Cheung. New York: Cambridge UP, 1997. 289-311. Print.

Livesey, Ruth. “On Writing Portable Place: George Eliot’s Mobile Midlands.” *Mobility and the Humanities*. Ed. Peter Merriman, and Lynne Pearce. Trans. Kim Taehee, and Kim Soochul, et al. Seoul: LPBooks, 2019. 189-224. Print.

[라이브시, 루스. 「이전가능한 장소에 대한 글쓰기: 조지 엘리엇의 이동적 미들랜즈」. 『모빌리티와 인문학』. 피터 메리만, 린 피어스 편저. 김태희, 김수철 외 역. 서울: 도서출판 엘피. 2019. 189-224].

Lowe, Lisa. *Immigrant Acts*. Durham: Duke UP, 1996. Print.

- Marks, Peter. "Theatre Review: You for Me for You." *The Washington Post*. 12 Nov. 2012. Web. 1 Jan.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entertainment/theater\\_dance/theater-review-you-for-me-for-you/2012/11/12/52805020-2d06-11e2-b631-2aad9d9c73ac\\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entertainment/theater_dance/theater-review-you-for-me-for-you/2012/11/12/52805020-2d06-11e2-b631-2aad9d9c73ac_story.html)>.
- McMaster, James. "'But You Have to Do Something': The Racialized Holding Environment of Julia Cho's *Office Hour*." *Journal of American Studies* 22.2 (2019): 133-57. Web. 4 Apr. 2020.
- Popp, Olivia. "A Tale of Two Sisters: 'You for Me for You' Questions Truth and Reality in North Korea." *The Stanford Daily*. 19 May 2017. Web. 1 Jan. 2020.  
 <<https://www.stanforddaily.com/2017/05/19/you-for-me-for-you-6/>>.
- Rno, Sung. *Cleveland Raining. But Still, Like Air, I'll Rise*. Ed. Velina Hasu Houston. Philadelphia: Temple UP, 1997. Print.
- Roberts, Dmae. *Breaking Glass. But Still, Like Air, I'll Rise*. Ed. Velina Hasu Houston. Philadelphia: Temple UP, 1997. 271-330. Print.
- Shimakwa, Karen. "Ghost Families in Sung Rno's *Cleveland Raining*." *Theatre Journal* 52.3 (2000): 381-96.
- . "On Listening to the Unsaid: Julia Cho's *Durango* and Asian American Critique." *Center for Pacific and American Studies of The U of Tokyo*. *アメリカ太平洋研究* 9 (Mar. 2009): 83-93. Web. 4 Apr. 2020.
- Shin, Yeon Ju and Hyung Shik Lee. "The Influence of Mass Media on the Construction of Asian American Identity in *BFE* and *Kimchee and Chitlins*." *The Journal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19.2 (2015): 45-67. Print.  
 [신연주, 이형식. 「대중매체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변두리』(*BFE*)와 『김치와 곱창』(*Kimchee and Chitlins*)을 중심으로」. 『영미문학교육』 19.2 (2015): 45-67].

- Williams, Holly. "You for Me for You: New Drama Examines Why Not Every North Korean Wants to Escape the Country's Brutal Dictatorship." *Independent*. 6 Dec. 2015. Web. 1 Jan. 2020.  
<<https://www.independent.co.uk/arts-entertainment/theatre-dance/features/you-for-me-for-you-new-drama-examines-why-not-every-north-korean-wants-to-escape-the-country-s-a6762576.html>>.
- Wang, Quan. "The Image of Food in Julia Cho's *The Language Archive*." *Explicator* 75.2 (2017): 129-32. Web. 4 Apr. 2020.
- Woo, Miseong. "Asian American Male Sexuality Torn Between Communal and Self Identities in Julia Cho's *Durango*." *Modern British and American Drama* 26.2 (2013): 197-216. Print.

##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of Korean American Diaspora in the Plays of Sung Rno, Julia Cho, and Mia Chung

Abstract

Lee, Hyung Shik (Konkuk Univ.)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different aspects of Korean American diaspora in the plays of Sung Rno, Julia Cho, and Mia Chung. Born and raised as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these playwrights delineate how different generations of immigrants exhibit different degrees of assimilation and suffer from the anxieties of identity formation. I discuss the plays of these playwrights through the lens of diaspora paradigm and suggest that even though the degrees of assimilation into American may be different among these generations, the diasporic state of being “suspended between countries of origin and adopted homelands” apply to all of them.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were forced to move to America because of war, famine, and economic difficulties. With little educational background in Korea, they could not successfully adapt to American society due to lack of language proficiency and were isolated from their spouses and children, not to mention the community surrounding them. In contrast, the second wave immigrants came over to achieve their American dream, that is, to enjoy affluent living and send their children to prestigious American universities. However, the characters in *Cleveland Raining* and *Durango* fail to assimilate into American community or working environment and their failure ultimately leads their family into dysfunctional situation. Even with their fluent English and education, their children also suffer from racialized environment and have difficulty constructing subject positions in America. Mia Chung’s *You for Me for You* is unique in that it deals with a North Korean refugee. Junhee, one of the two sisters,

immigrates to America to acquire an American citizenship so that she could rescue her sister held in custody in North Korea. The play contrasts the totalitarian system of North Korea with consumerism of the U.S. on the stage of magic realism. Junhee's itinerary from North Korea to the US and then to North Korea back again depicts Korean nomad's diaspora which still continues in the globalized world.

Key Words Diaspora, Placelessness, Identity, Korean American, Sung Rno, Julia Cho, Mia Chung

Note on the Contributor:

**Hyung Shik Lee** is Professor of Department of English at Konkuk University.

Email: [hyunglee@konkuk.ac.kr](mailto:hyunglee@konkuk.ac.kr)

논문투고일: 2020년 3월 6일

논문심사일: 2020년 3월 16일 ~ 3월 29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14일